

<위생전>에 나타난 공간과 인물의 관계

신태수*

- I. 문제 제기
- II. 공간의 특징과 구성 원리
 - 1. 공간의 양상과 특징
 - 2. 공간의 구성 원리
- III. 공간의 위상 변화와 인물의 대응
 - 1. 공간이 제시하는 가치와 그 위상의 문제
 - 2. 인물의 가치 선택과 저항적 논리
- IV. 공간의 대립 구도가 지니는 소설사적 의의
- V. 결론

【국문초록】

<위생전>은 17세기 소설 가운데서 특이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공간을 인물의 운명으로 조건지우는 한편 삶의 가치를 다층화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공간은 두 가닥의 대열로 나타난다. 한 가닥은 인물이 소망을 이루는 공간 대열이고, 다른 한 가닥은 인물이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공간 대열이다. 위경천은 성격이 다른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을 교차적으로 밟아나간다. 세 차례나 제시되는 소숙방의 집을 A대열이라 하고 악양성 나루터, 위경천의 집, 전장터를 B대열이라 할 때, A대열 → B대

* 경일대학교 교수

열 → A대열 → B대열 → A대열의 과정을 보인다. A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는 개체의 행동양식이고, B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는 집단의 윤리체계인데, 각 공간 대열은 서로 자기 쪽으로 위경천을 끌어들이고자 한다. <위생전>의 의의는 여기서 드러난다. 17세기의 공간이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세하게 파헤침으로써, 공간을 다변화하고 인간의 삶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위생전>의 의의가 된다.

주제어 : 공간 대열, 가치, 개체의 행동양식, 집단의 윤리체계, 변화

I. 문제 제기

17세기에는 주인공의 공간 이동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주생전>, <위생전>,¹⁾ <최척전>, <김영철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작품은 17세기 이전의 작품에 비해 사실적 표현이 아주 두드러진다. 공간과 공간이 불가항력적인 조건을 형성하며 남녀 주인공이나 가족 구성원을 압박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적 표현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남녀 주인공을 내세워 결연을 가로막는 원인을 파헤치는 데 주안점을 두므로, 사실성의 대상은 사회 상황으로까지 확대된다. 17세기 이전에도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다룬 소설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공간 이동이 본질적인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특정 공

1) 정명기, <韋生傳> 교감의 문제점, 『古小說研究』22집, (韓國古小說學會, 2006), 67면에서 <위경천전>이라는 명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임형택 소장본의 제명만 <위경천전>이고 그 이외 이본 세 편이 제명이 <위생전>이라고 한 점을 들어 전체 제명을 <위생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위경천전>이라는 제명의 이본이 더 발굴되기까지는 정명기 교수의 견해가 유효하다고 보아, 본고에서도 <위생전>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간만이 돌출하여 개인의 욕망 성취를 가로막고 있어서 공간의 위력이 지속적이지 못한 까닭이다. 이 점에서 공간이 인물을 압박하며 사회 상황을 비추는 17세기의 소설은 주목에 값한다.

소설에서의 공간은 ‘특정 인물의 위치나 대상이 놓인 자리’가 아니다.²⁾ 사회 상황을 비추고 인물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므로, 인물 못지않은 위상을 지닌다. 유클리드식의 인식체계에 사로잡혀 공간을 단순한 땅덩어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공간을 단순한 땅덩어리라고 한다면 인물만 인정하고 공간은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고 만다. 주인공이 공간 이동을 많이 하는 17세기 몇몇 소설의 경우는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특히 요구된다. 인물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공간뿐만 아니라 국외의 공간으로까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인물을 떠밀어내는 주체는 다름 아닌 공간이다. 하나의 공간은 운명이나 권력이나 전란을 장악하여 인물을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 떠밀어낸다. 공간과 공간이 의미망을 형성하며 인물을 밀쳐낸다는 점에서, 공간과 공간의 작용을 ‘공간의 연대 현상’이라고 지칭해도 좋으리라 본다.³⁾

공간이 연대 현상을 보일 때, 인물도 그냥 있지는 않는다. 인물에 따라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나름대로 저항을 시도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저항의 강도는 신념의 차이에서 생긴다. 즉 신념이 강할수록 저항이 적극적이고 신념이 약할수록 저항이 소극적이다. 17세기 소설 작품 가운데서 <위생전>은 특히 주목을 요한다. 인물이 공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작품

-
- 2) 형식주의적 문학 이론가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한다. 인물과 공간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장치 구실을 하는 이상, 인물 못지않게 공간에게도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기에 충분하다.
 - 3) 이른바 ‘공간의 연대’ 현상이 이루어지면 인물은 아주 초라한 처지가 된다. <이태경전>에서 보듯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태경도 눈물을 흘리며 떠밀려가고, <최척전>에서 보듯 가족애가 철저한 최척도 눈물을 흘리며 떠밀려간다.

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위경천은 연인인 소속방과의 결연을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인물이다. 전란의 공간에 떠밀려 이별의 슬픔을 겪지만, 신념이 너무나 강한지라 포기하지 않는다. 소속방을 오매불망하던 위경천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죽어서도 소속방과의 결연을 강력하게 소망한다.⁴⁾ 상여를 타고 되돌아온 위경천은 드디어 소속방과 같은 곳에서 나란히 묻힐 수 있었으니, 전란의 공간도 위경천의 저항 앞에 손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⁵⁾

<위생전>의 주인공이 공간에 어떻게 저항하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주인공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공간과 인물이 맞서는 소설을 놓고 인물만을 다룬다면 반쪽짜리 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과 주인공이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인물 못지않게 공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필자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공간의 구성 원리를 탐색한 다음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폭넓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위생전>에 대해 연구가 적은 편이고,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도 작가론과 인물론에 치우쳐 있음에 비추어볼 때, 본고에서 전개하는 공간론은 <위생전>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위생전>의 이본으로는 몇

-
- 4) 주인공의 기이한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위생전>을 전기소설사의 맥락에서 본 논자들이 있다. 林煥澤, 傳奇小說의 戀愛主題와 <韋敬天傳>, 『東洋學』2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2)와 文範斗, <韋敬天傳>에 대하여, 『嶺南語文學』28, (嶺南語文學會, 1995)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전기소설에 ‘공간을 통한 현실 드러내기’의 창작방법이 도입되었는지, ‘공간을 통한 현실 드러내기’의 창작방법에 전기적 기법이 도입되었는지가 확실치 않다. 전자라면 전기소설사의 맥락에서 다룰 수 있지만, 후자라면 공간 중심의 소설사적 맥락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 어느 쪽인지는 더 깊이 따져서 판가름해 볼 일이다.
- 5) 공간의 영향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원인을 위경천의 성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논의가 그런 점을 말해준다. 몇몇 논자들은 위경천의 성격이 즉흥적이고 격정적이어서 전후좌후를 돌아보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고 한다.

편이 전하지만, 어느 이본을 택하더라도 공간론을 고찰하는 데는 대차가 없으리라고 본다. 필자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임형택 소장본을 자료로 삼고자 한다.⁶⁾

II. 공간의 특징과 구성 원리

1. 공간의 양상과 특징

위경천은 장생과 더불어 금릉과 장사 땅을 거쳐 岳陽城으로 유람을 간다. 동정호에서 뱃놀이도 하고 소회도 읊조리다가 악주의夜色에 흠뻑 빠져든다. 몽환적 분위기 속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다 붉은 누각으로 숨어들게 되고, 거기서 소숙방과 가연을 맺는다. 소숙방과의 몽환적 가연은 아침이 되면서 산산조각이 난다. 장생이 위경천을 악주와 거리가 먼 전당으로 데리고 가 버렸기 때문이다. 위경천은 극도로 상심하지만, 아버지의 주선으로 결혼에 성공하고 악양성의 처가에서 기거한다. 그 해 8월에 위경천은 조선 전란으로 인해 전장터로 나아갔으나,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만다. 위경천이 아버지에게 현몽하여 상여가 소숙방의 집을 지나가도록 당부하고, 그 아버지는 위경천의 당부를 들어준다. 위경천의 상여가 나루터에 당도하자 소숙방은 자결한다.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위생전>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위경천이 이동한 공간은 여럿이다. 금릉, 장사, 악양성, 동정호, 붉은 누각, 전당, 조선의 전장터 등의 공간이 그것이다. 물론 여러 개의 공간이 대등하지는 않다. 소숙방의 집, 악양성 나루터, 위경천의 집, 조선의 전장터는 위경천이 직접 돌아다니는 공간이고 금릉, 장사, 동정호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공간이어서, 그 비중이 다르다. 전자는 위경천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후

6)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月印, 1999)에 수록된 번역본에 의거한다.

자는 그렇지가 못하다. 공간이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전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서로 겹쳐지면서 의미를 증폭시키기도 하므로, 겹쳐지는 양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공간의 전개 순서를 나열해보면, ‘소속방의 집 → 악양성 나루터 → 위경천의 집 → 소속방의 집 → 조선의 전장터 → 소속방의 집’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 1) 소속방의 집 -- 위경천이 악양성에서 술을 마시고 배 안에서 잠이 든다. 깨고 보니 날은 이미 어둡다. 노랫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니, 누각이 나타난다. 밤중인데도 누각 안은 그야말로 別有天地이다.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다가 문이 닫히는 줄도 모른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위경천은 이리저리 배회하다 후원의 소속방을 발견한다. 그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운지라, 침실로 뛰어들어 반강제로 가연을 맺는다.
- 2) 악양성 나루터 -- 위경천이 강둑에 이르니 아침해가 떠오르려 한다. 장생을 깨우고 간밤의 일을 말하자 장생은 믿으려하지 않다가, 위경천의 태도를 보고 사실임을 알게 된다. 장생은 옷깃을 여미며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나무란다. 준엄한 질책에도 별 반응이 없자 장생은 위경천에게 대취하게 한 뒤 전당으로 배를 몰아온다.
- 3) 위경천의 집 -- 위경천은 슬픔에 젖어 크게 상심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고 만다. 부모가 근심하여 가슴에 맺힌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위경천은 소속방과의 일을 말하고 죽기 전에는 잊을 수 없다고 한다.
- 4) 소속방의 집 -- 부모가 하인을 보내어 결혼 의사를 표시하려 하니, 소상국의 심부름꾼이 막 들어서고 있었다. 양가의 합의로 드디어 화족을 올리고 처가에서 살게 된다.
- 5) 조선의 전장터 -- 위경천은 아버지를 따라 요동으로 출정한다. 이별의 슬픔이 크고 고생을 많이 한지라 위경천은 증병에 걸린다. 아버지의 곡진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위경천은 드디어 죽음에 이르고 만다.
- 6) 소속방의 집 -- 위경천의 상여가 소속방의 집 앞으로 가기 위해

악주로 향한다. 상여가 악주의 나루터에 당도하니 위경천의 소식이 소속방의 집에까지 전해진다. 기구한 사연을 들은 소속방은 즉시 목을 매고 죽었다. 위경천과 소속방은 나란히 길옆에 묻힌다.

1)~6)의 공간은 상호 경계가 유동적이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간의 기능이 불분명하다. 악양성 나루터와 전당은 강변이고, 소속방의 집과 전장터는 육지이다. 강변과 육지가 다르다면 특성에 걸맞는 기능이 제시될 법한데, 강변에서는 이동이 잦고 육지에서는 이동이 적다는 차이가 고작이다. 둘째, 공간과 공간의 거리가 불분명하다. 악양성 나루터와 전당은 거리가 멀어야 한다. 장생이 위경천을 악양성의 소속방과 떼어놓기 위해 전당으로 데리고 갔으니, 악양성과 전당의 거리가 멀어야 제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침 해가 이미 떠오를”(81면) 때 출발해서 “강가의 하늘이 밝아오려 할”(83면) 때 도달했다고 한다. 한 나절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의 기능이 불분명하고 공간과 공간 간의 거리까지 불분명하므로, 여러 공간을 펼쳐놓았을 때 공간 상호간의 경계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공간의 경계가 유동적인 까닭은 공간의 특정 지점만을 표집한 데서 비롯된다. 악양성을 동원하면서도 나루터만을 다룬다거나 전당을 동원하면서도 물가만을 다룬다. 특정 지점만을 다룬다면 위치가 분명할 듯하나, 그렇지 않다. 지리적 정보는 없고 그저 배를 댄다고만 하니, 위치가 모호하기만 하다. 배를 댄 수 있고 전체 구도와 어울리기만 한다면 다른 무엇으로 바뀌어도 무방할 성싶다. 이런 정황은 전장터의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92면) 전장터에 도달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고, 그 위치가 불분명하다. 공간을 동원하되 특정 국면만을 일관되게 조합하므로, 원래의 공간적 특성을 소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공간적 특성을 소거하면 여러 공간을 일정한 방향으로 운용하기가 쉽

다고 볼 때, 특정 국면의 표집 현상은 공간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한다. 공간의 배열 양상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공간은 두 가닥의 대열로 나타난다. 한 가닥은 인물이 소망을 이루는 공간 대열이고, 다른 한 가닥은 인물이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공간 대열이다. 소망의 성취 여부는 인물에 달려 있지 않다. 인물의 능력은 일정한데도 공간의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므로, 소망의 성취 여부는 공간에 달려 있다. 원래의 공간이 지니는 특징은 별 다른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 즉 악양성이라고 해서 악양성다운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국면만을 여럿 표집한 결과, 원래의 특징을 상실해 버린 탓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공간 하나하나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보다는 공간 대열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중요하다.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은 1)4)6)의 공간과 2)3)5)의 공간이다. 1)4)6)의 대열은 소망을 이루도록 하고, 2)3)5)의 대열에서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이 위경천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채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1)4)6)의 공간 대열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경천의 억눌린 정서를 감발시키고 소속방과 가연을 맺게 한다. 1)의 경우는 종래 지녔던 위경천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는 풍광을 갖추고 있다. 온갖 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벌과 새소리가 요란하고, 비단 오리가 연못속을 노닌다. 붉은 누각 속의 별천지는 위경천의 이성을 빼앗고 본능에 따라 몸을 맡기도록 만든다. 소속방의 방을 뛰어드는 위경천에게서 유가로서의 이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4)6)의 경우는 소속방과 가연을 맺게 한다. 4)에서는 생전에 부부지연을 맺도록 하고, 6)에서는 사후에도 부부지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위경천의 소망이 낭만적인 고장에서 연인과 해로하는 데 있다고 볼 때, 1)4)6)의 공간 대열은 상황과 조건을 달리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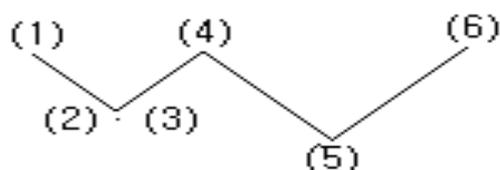
위경천의 소망을 한껏 채워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2)3)5)의 공간 대열은 소속방과의 거리를 벌려놓고 위경천에게 충격을 가한다. 2)에서는 크게 상심하도록 만들고, 3)에서는 중병이 들도록 만들고, 5)에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 위경천이 받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니, 공간의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다. 2)3)의 경우는 장생의 우정을 도구로 삼는 데 비해, 5)의 경우는 전란의 불가역성을 도구로 삼는다. 전자가 개인적 차원의 장애물을 설정한다면 후자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물을 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 왜 두 차례에 걸쳐 장애물이 설정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위경천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장애물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 전란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장애물 앞에 어떤 인물도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볼 때, 2)3)5)의 공간 대열은 위경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 1)4)6)의 공간 대열은 우호적이고 2)3)5)의 공간 대열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공간이 편을 갈라서 맞서는 형국을 보이므로, 어느 쪽의 공간 대열이 우위에 서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3대 3으로 맞서는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 3대 3에 대한 논란이 생길 여지는 있다. 논란거리인 6)의 공간이다. 위경천이 6)의 공간에서 소망을 이루었으니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죽어서 소망을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면적으로는 비우호적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해석 여하에 따라 6)의 공간이 2)3)5)의 공간 대열에 배속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살아서 이루든 죽어서 이루든 소망을 엄연히 성취했으니 소망의 성취는 어디까지나 공간의 몫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볼 때, 실제의 공간적 특징이 소거된 상태에서 여러 공간이 두 가닥의 대열로 편을 갈라서 팽팽하게 맞서는 현상이 <위생전>이 지닌 공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공간의 구성 원리

위경천은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을 고루 거친다. 한 가닥의 공간 대열을 거친 후에 또 다른 공간 대열로 나아가지 않고, 성격이 다른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을 교차적으로 밟아나간다. 즉 1)의 공간을 거친 다음 2)·3)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또 4)의 공간을 거친 다음 5)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6)의 공간을 거친 다음 멈춘다. 1)·4)·6)의 공간 대열을 A대열이라 하고 2)·3)·5)의 공간 대열을 B대열이라 할 때, A대열 → B대열 → A대열 → B대열 → A대열의 과정을 보이는 셈이 된다. A대열인 1)·4)·6)의 공간 셋은 동일한 강도로 우호적 성격이 유지되고 B대열인 2)·3)·5)의 공간은 적대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경천이 공간을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도표를 보니, 위경천이 지그재그식으로 공간을 이동한다. 1)의 공간에서 4)의 공간으로 곧 바로 나아가지 않고 2)·3)의 공간을 거치고, 4)의 공간에서 6)의 공간으로 곧 바로 나아가지 않고 5)의 공간을 거치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의 이동 현상을 보인다. 위경천은 1)·4)·6)의 공간인 A대열로만 나아가고 싶을 터이지만, 2)·3)·5)의 공간인 B대열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B대열이 방해하는 정도는 일정하지 않다. 첫 번째의 방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2)3)의 공간보다는 두 번째의 방해 단계라 할 수 있는 5)의 공간이 더욱 더 가혹하다.⁷⁾ 2)의 공간에서는 ‘친구’가 3)의 공간에서는 ‘가풍’이 5)의 공간에서는 ‘전란’이 위경천의 행로를 방해했으니, 2)3)의 공간보다는 5)의 공간이 훨씬 더 가혹한 바이다. 왜 위경천은 A대열로만 나아가고자 했으며, B대열은 위경천의 행로를 적극적으로 가로막으려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A대열의 공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대열의 공간은 위경천에게 대단한 의의를 지닌다. 소숙방이 있어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소숙방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붉은 누각으로 인해 낮이 나가 있었으니, 공간 자체의 특징으로 인해 의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⁸⁾ 공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계의 탈속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붉은 누각 속에 인간이 생각할 만한 아름다운 요소는 모두 표집되어 있으니, 선계의 풍광이라고 해야 어울린다. 둘째, 본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 현실계에서는 예교에 얽매이지만, 은밀한 공간인 붉은 누각 안에서는 예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셋째, 갈등과 질곡이 없다. 붉은 누각 안에는 온종일 잔치가 벌어지므로, 흥겨움만 넘쳐난다. 세가지의 특징을 조합해 보면 붉은 누각은 현실과는 판이하다. 현실에 없는 특징으로 조합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別有天地이다.

별유천지를 이상향이라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향이라고 하면 절대적 의미의 이상향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현실이 결핍상태라고 생각하는 자가 충족의 공간을 상정하고 이상향이라고 한

7) B대열의 낙폭이 일정하지 않다. ‘1) → 2)3)’의 낙폭보다 ‘4) → 5)’의 낙폭이 더 크서 낙폭이 다르게 나타난다.

8) 만약 소숙방이 저자거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위경천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자. 위경천이 작품에서처럼 정욕을 느끼고 달려들지는 않았을 터이다. 소숙방이 미인이기도 하지만 붉은 누각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미인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공간이 인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관여한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다.9) 명확한 서술은 없지만, 위경천은 현실에서 결핍상태에 있는 자이다. 유람이라는 미명 아래 떠돌이 삶을 영위하는 데서 그런 점이 암시된다. 평소에는 의기소침하던 위경천이 붉은 누각에 들어서기만 하면 돌변한다. 도둑처럼 남의 집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강제로 끌어안는다. 이런 모습을 통해 위경천은 본능과 감성에 목말라 있었고, 그런 계기를 붉은 누각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붉은 누각이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본능과 감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상향이 된다. 이 점에서 붉은 누각은 존재의 의의를 담보하는 이상향이라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른바 이상향은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 자리한 공간이다.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하나, 악양성 강가에 위치한 한 채의 가옥에 불과하다. 이 한 채의 가옥이 현실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실계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속적 분위기 속에서 詩情을 마음껏 발산하고 갈등과 질곡이 없는 곳이라면 이 한 채의 가옥과 유사하다고 할 만하다. <운영전>의 수성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처럼 이상향이 현실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현실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노랫소리가 마을로 흘러 나오는 현상은 이상향과 현실계와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를 말해준다.10) 현실계와 연관이 깊은 이상향이라고 할 때, 온전한 이상향이

9) 이상향은 현실과 상반된 측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 으레 이상향이라고 하면 세금이 없고 법이 없다고 하기 일쑤인데, 현실세계에서는 세금이 많고 법치가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결핍상황이 이상향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 중국의 무릉도원이라든가 서양의 유토피아만 보더라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이상향 설정의 연원과 배경에 대해서는 진정영·임기영,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이성규 역, (지식산업사, 1990), 54~57면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10) 대립하는 사물은 완전히 서로 별개가 아니라 타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쪽의 결핍 요소를 다른 한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실계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상향에 진입하더라도 현실계와 유리되고 절연되기가 어려우니, 온전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위경천에게 있어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상향이 현실계에 위치한다는 점은 문제를 푸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이다. 이상향이라고 하면 으레 현실계와 동떨어지게 마련이지만, <위생전>의 이상향은 그렇지 않다. 이상향이 현실계와 우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상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현실계에 놓여 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위경천의 처지가 애매해진다. 현실계의 간섭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즉 이상향이 가져다주는 소망 성취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현실계가 가져다주는 소망 불성취의 절망감까지 고스란히 맛보아야 한다. 위경천에게는 이상향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이상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계의 저지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 이상향이 현실계에 놓임으로써 위경천의 위상이 뚜렷이 부각된다. 소망 성취와 불성취의 주체는 위경천이지만, 진입과 저지의 주체는 공간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상향이 현실계에 놓이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위생전>이 인물 중심이 아니라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공간 중심인 소설을 놓고 인물만을 주목한다면 위경천이 여러 공간을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공간 중심인 소설을 놓고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따질 때, 위경천이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이유가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위생전>에서 A대열은 위경천의 이상향 진입을 도와주고 B대열은 위경천의 이상향 진입을 저지한다. 위경천이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시각도 가능하다. 철학자 쿠자누스는 이런 시각을 일러서 ‘극성의 철학’이라고 한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다른 것이 아닌 것』, 조규홍 역, (나남, 2007), 57~63면에 이런 입장이 잘 서술되어 있다.

이유는 A대열의 진입시키는 위력과 B대열의 저지하는 위력이 서로 엇비슷한 데서 비롯된다. 공간의 구성 원리는 여기서 드러난다. ‘A대열과 B대열이 서로 자기 영역으로 인물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기’가 바로 <위생전>이 지닌 공간의 구성 원리이다.

Ⅲ. 공간의 위상 변화와 인물의 대응

1. 공간이 제시하는 가치와 그 위상의 문제

A대열의 공간은 은밀하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기는 해도 위경천에게만 열려 있고 위경천에게만 유독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인 B대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작품의 외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은밀하고 반사회적인 공간이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공간과 대등한 경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작품의 내적 측면에서 어디까지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두 대열이 위경천에게 각기 다른 삶의 가치를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는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삶의 가치를 놓고 맞서는지를 탐색한다면 A대열이 B대열과 맞서는 동인을 밝힐 수 있으리라 본다.

가치의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어떻게 공간이 가치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공간이 단순한 땅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가치 제시의 양상이 포착되지 않는다. 만약 인물처럼 言表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인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자체의 성격이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긴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위생전>의 경우는 단연

후자 쪽이다. 공간 그 자체의 성격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징후가 선명하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바로 그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위경천은 공간이 제시하는 가치에 얽매이고, 그런 가치가 위경천의 삶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공간이 인물 못지않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간의 이런 기능은 인물의 말, 지리적 배경, 분위기 등의 여러 상황을 통해 나타나므로, 각각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공간이 제시하는 가치를 찾아내면 된다.

A대열에 나타난 상황과 가치

- 1)의 공간 : 상황 -- 붉은 누각 속에서 일탈의 정서에 빠져드는 위경천
가치 --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능과 감성에 충실해야 한다.
- 4)의 공간 : 상황 -- 우여곡절 끝에 소속방과 결연을 이룬 위경천
가치 --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장벽이라도 돌파해야 한다.
- 6)의 공간 : 상황 -- 죽어서 길 가에 나란히 묻힌 위경천과 소속방
가치 --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죽어서도 이별해서는 안 된다.

B대열에 나타난 상황과 가치

- 2)의 공간 : 상황 -- 위경천의 애정 행각을 질책하는 장생
가치 -- 선비는 모름지기 개인과 가문의 영달을 추구해야 한다.
- 3)의 공간 : 상황 -- 자아를 윤패하고 구속하는 위경천의 집
가치 -- 하룻밤의 불장난은 잊어버리고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 5)의 공간 : 상황 -- 행군의 고역과 상사의 병을 가중시키는 전장터
가치 -- 대장부라면 출전해서 대공을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두 대열에 나타난 상황과 가치는 큰 차이를 보인다. A대열에서는 개인적 차원과 연관된 상황이 나타나고, B대열에서는 사회적 차원과 연관된 상황이 나타난다. 상황이 이처럼 다르니 상황을 통해 표출되는 가치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A대열에서는 개체의 행동양식을 가치로 제시한다. 본능과 감성을 마음껏 발산하고 사랑의 자세를 강조하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한편 B대열에서는 집단의 윤리체계를 가치로 제시한다. 유가주의의 입장에서 선비의 본분을 강조하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상황과 가치를 통해 본 공간 대열은 중세사회의 일반적 관행에서 많이 비껴나 있다. 중세적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개체의 행동양식이 집단의 윤리체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이게 마련인데, 두 대열에서는 그렇지 않다. A대열에서 집단의 윤리체계에 갇혀 있던 개체의 행동양식에 독자적 위상을 부여하고 집단의 윤리체계와 맞서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개체의 행동양식이 부각되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관심사이다. 결론부터 성글게 말하면 공간의 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위력 내지는 위상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공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중심부의 공간과 주변부의 공간이 그것이다. 공간이 위력과 위상에 의해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분이 오래 이어지면 위력과 위상 이전에 공간의 구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생겨난다. 중국의 中華主義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화주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힘의 증강이나 세계관적 혁신이 필요하듯이, 주변부이던 공간이 중심부의 공간과 대등해지려면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생전>의 A대열은 이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A대열이 제시하는 가치가 B대열이 제시하는 가치와 대등해진 현상은 공간을 둘러싸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轉機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간의 내부에서 그 내막을 탐색해 볼 수 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부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이므로, 공간의 내적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된다. 위경천이 B대열에 진입하기만 하면 A대열이 끌어당기는 현상은 그 좋은 증거이다. 17세기는 중세적 특징과 아직은 근대라고 할 수 없는 반중세적인 특징이 공존하는 시대이다.¹¹⁾ 중세적 특징은 경직된 정치 이데올로기와 절대적 가치관에서 드러나고, 반중세적인 특징은 한계효용을 예고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론과 상대적 가치관에서 드러난다. 사정이 이렇다면 A대열이 B대열과 대등해진 원인은 반중세적 특징이 솟구쳐 올라 중세적 특징과 어깨를 나란히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라면 반중세적 특징이 본격적으로 솟구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때, 공간 내부의 움직임은 시대 변화를 예고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공간에 대한 화자의 시각에서 그 내막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이 제 스스로 중심부와 주변부라고 표명하지는 않으므로, 공간의 구분이 화자의 시각에 의해 포착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여기서 공간 인식의 단계를 상정해 봄직하다. 첫 번째로 공간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진다고 믿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공간의 경계가 확고하다고 여기는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절대적 공간 인식이라 부를 만하다. 두 번째로 공간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상대적 공간 인식이라 부를 만하다.¹²⁾ <위생전>의 화자는 두 번째 단계에

11) 17세기 이후의 사상적 추이에 대해서는 柳裁澤, 朝鮮實學者의 歷史教育觀, 『韓國史의 理解』, (신서원, 1991), 256~260면과 李萬烈, 17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韓國의 歷史認識』下, (創作과批評社, 1976), 341~249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참조할 만하다.

12) 이런 인식은 17·18세기의 실학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李瀼, 『星湖僊說』天地問 分野條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중국은 전체의 대지 가운데 一片土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九州楚齊도 하나의 나라에 불

속한다. 주변부인 A대열을 중심부인 B대열과 대등하게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결국 화자의 상대적 시각이 A대열을 두 번째 단계에 배속되도록 하는 근거인 셈이 된다.

A대열이 제시하는 가치와 B대열이 제시하는 가치가 맞설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공간 그 자체가 중심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과 화자가 상대적 시각으로 공간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두 가지의 요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문제가 생긴다. 즉 공간의 움직임이 아무리 활발하더라도 화자의 상대적 시각이 없다면 화자의 상대적 시각이 있더라도 공간의 움직임이 없다면 A대열이 제시하는 가치가 상승할 수 없다. 두 가지의 요인을 모두 충족시킨 작품이 <위생전>이라고 볼 때, <위생전>에 나타난 전체 공간의 구도야말로 단순하지가 않다. 상황이 가치를 표출하고, 그 가치는 A대열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창작방법의 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2. 인물의 가치 선택과 저항적 논리

위경천은 공간이 제시한 두 가지 가치 중에서 개인의 행동양식을 선택한다. 두 가지 가치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집단의 윤리체계는 설 자리가 없다. 생각하기에 따라 집단의 윤리체계도 좋은 면이 있기는 하다. 경직되어 있어도 일단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편안해진다. 정체성을 빼앗는 대신에 평균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위경천은 주저 없이 개인의 행동양식을 선택했으나, 평균적인 평화 쪽을 버리고 정체성 쪽을 지향한 셈이 되었다.

과하다고 했으니, 더 이상 중국을 중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 역사 인식이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저변에 형성되었다는 방증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위생전>의 화자는 바로 이런 인식과 동궤에 놓여 있다.

왜 위경천은 정체성 쪽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A대열에 들어서면서 위경천의 자세가 그 이전과 달라졌음을 감안할 때, 공간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가 정체성 쪽을 선택하도록 했을 법하다. 위경천의 身元을 면밀히 따지면서 정체성 쪽을 선택한 이유를 힘써 찾아보기로 한다.

화자에 따르면 위경천은 대단한 인물이다. 당나라 소주자사 韋應物的 후예로서 文才가 뛰어났고, 열다섯에 이미 위경천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전도양양한 문사라 할 수 있다. 한편 화자와 어긋나는 진술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위경천 부친이 소속방 부친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그것이다. 자신은 武人이고 집안이 대대로 영세하고 가난하게 살아왔기에 이웃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고 노복들은 달아나고 없다고 한다. 겸양지덕을 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들어 있다. 가난해서 업신여김을 받았든지 노복들이 달아났든지 하는 데서 실제의 사정을 언급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화자는 위경천의 능력만을 언급했고 위경천 부친은 집안 사정만을 언급했으니, 두 가지를 합쳐보면 위경천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 영락한 가문에서 출중한 재주를 지닌 문사가 위경천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가문이 영락하더라도 능력이 탁월하다면 출세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울 법도 하지만, 이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기는 하나, 장성해서도 과거에 응시했다고 하지 않으므로 과거에 응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는 추측된다. 결국 윗대의 위응물은 대단하지만, 그 이후로는 두드러지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집안이 대대로 영세하여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 왔”(88면)다는 부친의 언급을 토대로 할 때, 위응물 이래로 가세가 몰락했으리라 여겨진다. 가난하다고 하여 이웃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이니, 그 정도가 과도한 편이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집안 사정이 이 정도이고 보면 위경천

의 전도가 밝다고 할 수는 없다. 일신이 답답하고 울분이 쌓일 때 정반대의 환경과 처지를 꿈꾸게 마련인바, 악양성으로의 여행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위경천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무엇을 꿈꾸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다. 화자가 인물의 처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처 꿈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악양성으로 가기는 해도 붉은 누각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고, 붉은 누각 앞에서 어리둥절해 하는 점이 꿈을 구체화하지 못한 정황이 아닌가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붉은 누각 안에서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현상은 위경천이 평소의 꿈을 실현한 결과라기보다는 붉은 누각이라는 공간이 부여한 가치를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아야 온당하다. 가치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이든 위경천이 받아들인 이상, 그런 가치는 위경천의 몫이다. 막연하게 돌파구를 찾던 위경천에게 붉은 누각은 삶의 새로운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경천은 그런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했다고 보면 된다.

- 가) 환경으로서의 가치 --- 제반 여건을 풍족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나) 욕망으로서의 가치 -- 지체 높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 다) 규범으로서의 가치 -- 예교에 얽매이지 않고 성정을 분방하게 펼쳐야 한다.

가)~다)는 사고와 행동을 통해 추출해 본 삶의 가치이다. 위경천이 예전에 없던 가치를 새롭게 가진다는 점에서 정체성은 더욱 뚜렷해졌지만, 일상적인 삶과 너무 멀어졌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가세가 기울어지고 지체가 높지도 않고 예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를 감안하면, 가)~다)의 가치는 위경천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가치의 수준이 너무 높으므로 조정이 필요하

지만, 위경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새롭게 내면화한 가치를 유일의 가치라 여기는 까닭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새로운 가치에 쏠려 있고, 전장터에 나가서도 새로운 가치에 쏠려 있다. 위경천의 처지는 물속의 고기와도 같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위경천 또한 새로운 가치를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는 오로지 붉은 누각 안에만 있으니, 위경천이야말로 붉은 누각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에 다름 아니다.

위경천이 새롭게 확보한 가치가 어느 정도의 의의를 지니는지가 관심사이다. 붉은 누각 안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가치라면 위경천에게만 의의를 지니게 마련이다. 바꾸어 말해서 위경천이 확보한 가치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도저히 파급될 수가 없다. 위경천의 절절한 심경을 아주 친한 벗인 장생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경천이 소숙방을 잊지 못해 중병에 걸렸다고 실토하자 부모가 지체 없이 혼사를 주선한 바 있지만, 결코 위경천이 확보한 가치를 이해해서가 아니다. 부모는 소숙방이라는 규수만을 생각했을 따름이고, 소숙방에 대해 붉은 누각이 제공한 가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위경천에게는 삶을 온통 걸 만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나 부모도 끌어들이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협소하기만 하다.

위경천이 선택한 가치가 의의를 지니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타인의 입장¹³⁾에서는 위경천의 가치가 몽상에 불과하다고 할 여지가 있으나, 위경천은 붉은 누각이 제공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타인을 동조자로 만들

13) 친구 장생의 입장이 그 좋은 예이다. 유가주의에 빠져 있는 장생은 유가주의를 벗어난 위경천의 행동을 ‘위험한 일탈’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32면에 의거해서 판단해 본다면 장생은 ‘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력의 결과가 실패하지 않기는 했어도 집단의 윤리체계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의의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집단의 윤리체계는 인물 개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문의 위상 속에 개인을 묶어 버림으로써 가문의 위상이 낮다면 인물의 능력도 낮아지도록 한다. 위경천은 가문의 위상은 낮지만 능력이 출중하므로, 정체성을 압살하는 집단의 윤리체계에 편승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위경천이 확보한 가치는 출발부터 저항적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언급이 가능해진다.¹⁴⁾

IV. 공간의 대립 구도가 지니는 소설사적 의의

<위생전>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공간 대열이 맞서는 소설이다. 이른바 A대열과 B대열의 맞서기 현상이 그것이다. 다른 소설에서는 어느 한 쪽의 공간이 다른 공간을 압도하기 때문에 공간의 대립 구도가 나타날 수 없다. 여타 소설에 견주어 볼 때, <위생전>의 공간은 크게 두 가지의 의의를 지니는 셈이 된다. 한 가지는 유사한 공간들이 서로 연대하여 하나의 대열을 형성한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두 가지의 대열이 솟아올라 서로 맞선다는 점이 그것이다. 유사한 공간들이 서로 연대하여 대열을 만드는 현상도 예상스럽지 않는데, 공간 대열이 둘이나 솟아나서 서로 맞서기까지 하는 현상은 더욱 예상스럽지 않다. 공간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14) 鄭珉, <韋敬天傳>의 낭만적 성격, 『韓國學論集』22,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1993), 309면과 鄭炳浩, <周生傳>과 <韋敬天傳>의 比較 考察, 『古小說研究』6, (韓國古小說學會, 1998), 317면에서도 위경천의 행동을 저항적 논리의 결과로 보고 있다.

첫째, 원심적 공간체계와 구심적 공간체계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원심적 공간체계는 공간과 공간이 연대하여 인물을 최초의 지점에서 더 먼 지점으로 밀어내는 공간을 말한다. B대열이 바로 그런 공간이다. 원심적 공간에서는 공간이 이어질수록 위력이 강해지고 위력이 강해질수록 인물에게 가하는 횡포도 거세어지는데, B대열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2)의 공간보다는 3)의 공간이 더 위력이 강하고, 3)의 공간보다는 5)의 공간이 더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한편 구심적 공간체계는 특정한 인물을 일정한 지점으로 불러들이는 공간을 말한다. A대열이 바로 그런 공간이다. 구심적 공간에서는 공간이 여럿 이어지더라도 하나의 공간만이 의의를 지니는데, A대열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1)의 공간과 4)의 공간과 6)의 공간은 각기 기능을 달라도 소속방의 집 즉 붉은 누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한 작품에서 상이한 두 공간체계가 공존하는 경우는 나타나기 어렵다. 한 쪽이 집단의 윤리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 쪽이 개체의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두 쪽의 공간이 난마처럼 뒤엉켜서 풀어내기가 어려울 것도 같다. <위생전>은 이런 예상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두 공간체계를 분화시켜서 교차적으로 배열하고 인물로 하여금 지그재그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탈바꿈시켰던 바이다. 탈바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심적 공간이 개체의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본 점이 그것이다.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의 서사문학사에서는 구심적 공간이 집단의 윤리체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기 일쑤인데, <위생전>에서는 정반대로 뒤집었다. 집단의 윤리체계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개체의 행동양식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공간의 대립 구도가 나타날 수 있었다.

둘째, 하나의 공간 대열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공간 대열을 응시한다는 점이다. A대열과 B대열이 각기 자기의 특성에 맞추어

위경천에게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A대열이 B대열을 응시하고 B대열이 A대열을 응시하기도 한다. A대열은 B대열에 침투하고 B대열은 A대열에 침투한다는 점이 공간 대열끼리 응시한다는 단서가 된다. A대열이 ‘일탈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경천을 끌어들이면 B대열은 ‘친구’를 내세워서 빼앗아오고, 위경천이 B대열로 들어서면 A대열은 ‘결연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경천을 빼앗아오고, 위경천이 A대열에 들어서면 B대열은 ‘전란’을 조성해서 위경천을 빼앗아오고, 위경천이 B대열에 들어서면 A대열은 ‘사후 결연’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위경천을 빼앗아온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두 공간 대열은 위경천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느라 쟁탈전을 벌인다는 언급까지 가능하다.

공간 대열이 서로를 응시하는 현상은 공간이 생명의 주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공간이 無情物이라 하여 생명의 주체로 보지 않으려 한다. 공간이 과연 무정물인가?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서 볼 때 공간이 무정물 이상이기는 어렵다. 공간을 생명의 주체로 볼 만한 통로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이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生命思想家들이 해 온 바 있다. 이규보나 홍대용이나 박지원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들은 존재론적으로 人과 物이 대등하며 物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人을 바라본다고 한다.¹⁵⁾ <위생전>은 전통적 생명사상가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공간이 대열을 형성해서 각기 반대편의 공간 대열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공간의 대립 구도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생명 주체라는 관점

15) 이규보, 홍대용, 박지원의 사상은 『周易』과 『中庸』 그리고 陽明學에서 주장한 천지만물의 유기체론과 친연성이 아주 강하다. 아마도 이런 典籍의 趣意를 자양분으로 삼아 생명사상을 구체화했으리라 여겨진다. 동양의 생명사상에 대해서는 김세정, 『왕양명의 생명철학』, (청계, 2006)에서 전반적으로 밝혀 놓았기 참조할 만하다.

위에 행위 주체라는 관점까지 덧입혀짐으로써 가능했다.

셋째, 공간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에 의해 재편된다는 점이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이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 뿐이고 어느 공간이나 평면이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¹⁶⁾과는 달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고 공간은 곡선이고 찌그러져 있다고 한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은 <위생전>의 공간 인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 <위생전>에서 별 연관성이 없는 공간을 표집해서 굴곡을 가하고 찌그러뜨림으로써 원래의 성격과는 판이한 두 가지의 공간 대열을 만들어 내었으니,¹⁷⁾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생전>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이 공간의 대립 구도를 가능하게 한 동인인 셈이 된다. <위생전>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리는 없고, 경험적 현실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과 궤를 같이 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굴곡과 찌그러뜨림이 곧 경험적 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이 작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경험적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위경천은 중국인으로서 중국땅에서 살고 있다. 경험적 현실을 나타내자면 공간을 脫中國的으로 바꾸고 가치 개념을 불어넣음으로써 삶의 일반성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이 각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내세우며 위경천의 정체성을 압살하거나 부추기거나 하는 현상은 이런 요청에 부응한 결과이다. 굴곡과 찌그러뜨림의 과정 없이 경험적 현실이 가능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중국인이 중국땅에서 영위하는 삶이

16) 김상일, 『초공간과 한국문화』, (교학연구사, 1999), 24~26면과 스티븐 쉰,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4), 335~336면의 논의 참조.

17) 이런 기법은 <아비뇽의 아가씨들>에게서 보여준 피카소의 畫法과 유사점이 있다. 대상을 관찰하여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분해한 다음 재구성하여 표현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아무리 꺾진하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삶에도 통용되기는 어려우므로, 굴곡과 찌그러뜨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경험적 현실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볼 때,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이야말로 경험적 현실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논의의 결과, 공간의 대립 구도가 우연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확증을 잡을 수 있다. 원심적 공간체계와 구심적 공간체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을 응시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에 의해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으니, 공간의 구성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기법을 총동원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대두된다. 공간이 살아 있고 비균질적이라는 점을 들추어내느라고 <위생전>을 창작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소설이 인물을 떠나 성립될 수 없는 이상,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치밀하게 살피느라고 공간의 특징을 여럿 설정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공간과 인물의 관계라 해도 일정하지 않을 터인데, <위생전>에서는 시종일관 공간이 인물보다 우위에 선다. 사정이 이렇다면 공간이 인물보다 우위에 서는 상황을 꺾진하게 그리느라고 공간의 대립 구도를 다각도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위생전>은 17세기에 등장한 여타 소설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공간 우위의 소설이면서 공간과 공간의 대립 구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공간 우위의 소설로는 <주생전>, <남윤전>, <김영철전>, <이태경전>, <최척전>, <위생전>, <임경업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어느 작품 할 것 없이 원심적 공간체계가 작품을 지배한다. 원심적 공간체계의 특징이 대부분 그러하듯, 공간과 공간이 연대하여 인물을 떠밀어내기는 해도 공간 내부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충돌 현상이 없는 까닭이다. <위생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공간과 공간이 다른 가치를 제시하며 인물을 끌어들이고자 하기 때문에 충돌 현상이 확연

히 나타난다. <위생전>의 의의는 여기서 포착된다. 공간 우위의 기법과 공간 충돌의 기법이 혼합되어 있으니, 공간 우위의 소설치고는 이색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간 충돌의 기법이 <위생전>만이 지닌 특징이라면 이런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A대열은 구심적 공간체계를 통해서 현실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개체의 행동양식을 제시하고 B대열은 원심적 공간체계를 통해서 현실에서 용인되는 집단의 윤리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있어야 할 것’을 내세우고 후자는 ‘있는 것’을 내세우므로, 구심적 공간체계의 A대열은 이상주의를 지향하고 원심적 공간체계의 B대열은 현실주의를 지향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서로 이질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간 충돌의 기법은 결국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여타 공간 우위의 소설은 원심적 공간체계의 현실주의만이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위생전>은 원심적 공간체계의 현실주의에다 구심적 공간체계의 이상주의가 더 나타나는 셈이 된다.

<위생전>이 이상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한계라 할 수는 없다. 흔히들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주로 다룬 17세기 소설을 놓고 현실주의의 강도를 기준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곤 하지만, 이런 잣대가 <위생전>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현실주의가 가치 평가의 유일한 잣대가 아닌 까닭이다. <위생전>은 공간 충돌의 기법을 활용해서 현실의 질곡과 애환, 불가항력적인 운명, 남녀 결합과 이산의 문제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두 축으로 접근해 들어갔다. 그 결과, 17세기의 공간이 한편으로 인물에게 고난과 역경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소망과 기대감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이렇게 볼 때, 『위생전』은 공간을 다변화하고 인간의 삶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 결론

<위생전>은 17세기 소설 가운데서 특이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공간 우위의 기법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간을 인물의 운명으로 조건지우는 한편 삶의 가치를 다층화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필자는 이 점에 착목하여 공간과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공간이 어떻게 삶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지, 공간 우위의 창작방법이 소설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살핀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은 두 가닥의 대열로 나타난다. 한 가닥은 인물이 소망을 이루는 공간 대열이고, 다른 한 가닥은 인물이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공간 대열이다.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이 위경천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소속방의 집으로 형성되는 공간 대열은 인물에게 우호적이고, 악양성 나루터, 위경천의 집, 전장터를 공간 대열은 인물에게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때, 실제의 공간적 특징은 소거해 버리고, 공간을 두 가닥의 대열로 편을 가르고, 3대 3으로 팽팽히 맞서는 현상이 <위생전>이 지닌 공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위경천은 성격이 다른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을 교차적으로 밟아나간다. 세 차례나 제시되는 소속방의 집을 A대열이라 하고 악양성 나루터, 위경천의 집, 전장터를 B대열이라 할 때, 'A대열 → B대열 → A대열 → B대열 → A대열'의 과정을 보인다. A대열은 위경천의 이상향 진입을 도와주고 B대열은 위경천의 이상향 진입을 저지하는데,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이 지닌 위력이 서로 엇비슷하다. 공간의 구성 원리는 여기서 드러난다. 'A대열과 B대열이 서로 자기 영역으로 인물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기'가 바로 <위생전>이 지닌 공간의 구성 원리이다.

셋째, 두 가닥의 공간 대열은 서로 다른 가치를 제시한다. A대열

에서 내세우는 가치는 개체의 행동양식이고, B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는 집단의 윤리체계이다. A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가 B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와 맞서는 현상은 중세사회의 관행과는 다르다. 중세적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개체의 행동양식이 집단의 윤리체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이게 마련인데, 두 대열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A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에 독자적 위상을 부여하고 집단의 윤리체계와 맞서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넷째, 위경천은 A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B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와 맞서는 양상을 보인다. 타인을 동조자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집단의 윤리체계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는 점에서 과소평가될 수 없다. 위경천이 보이는 거부의 몸짓은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집단의 윤리체계는 인물 개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정체성을 압살하는 집단의 윤리체계에 편승할 수가 없다. 위경천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B대열이 아닌 A대열에서 내세우는 가치를 선택했으니, 선택의 행위에 저항적 논리가 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공간의 대립 구도는 유연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원심적 공간체계와 구심적 공간체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을 응시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인식에 의해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으니, 공간 우위의 양상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공간의 구성 기법을 총동원했다고 할 수 있다. 공간 우위의 소설로는 여러 작품이 있지만, <위생전>은 여타 작품이 지니지 못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7세기의 공간이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세하게 파헤침으로써, 공간을 다변화하고 인간의 삶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여타 소설과는 변별된다.

참고문헌

▣ 논문

- 柳裁澤, 朝鮮實學者의 歷史教育觀, 『韓國史의 理解』, (신서원, 1991), 256 ~ 260면.
- 文範斗, <韋敬天傳>에 대하여, 『嶺南語文學』28, (嶺南語文學會, 1995)
- 신태수, 對稱的 世界觀의 敘事 傳統과 初期 古小說의 向方, 『어문학』 95, (한국어문학회, 2007), 377 ~ 378면.
- 李萬烈, 17-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 『韓國의 歷史認識』下, (創作과批評社, 1976), 341 ~ 249면.
- 林煥澤, 傳奇小說의 戀愛主題와 <韋敬天傳>, 『東洋學』2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2)
- 정명기, <위생전> 교감의 문제, 『고소설연구』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鄭珉, <韋敬天傳>의 낭만적 성격, 『韓國學論集』22,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1993), 309면.
- 鄭炳浩, <周生傳>과 <韋敬天傳>의 比較 考察, 『古小說研究』6, (韓國古小說學會, 1998), 317면.

▣ 단행본

- 김상일, 『초공간과 한국문화』, (교학연구사, 1999), 24 ~ 26면.
- 김세정, 『왕양명의 생명철학』, (청계, 2006)
-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月印, 1999)
-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32면.
- 진정엽·임기엽,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이성규 역, (지식산업사, 1990), 54 ~ 57면.
-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다른 것이 아닌 것』, 조규홍 역, (나남, 2007), 57 ~ 63면.
- 스티븐 켄,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4), 335 ~ 336면.

**Relationship between Spaces and Characters
in <Biograph of Wisaeng>**

Shin, Tae-Soo

It is noticeable that the space-oriented plot technique was utilized very well in “*Biograph of Wi, Gyung-cheon*” among those novels written during 17th century, and some space characteristics and actions of characters are investigated in the view of literature-history as follows; First, spaces in the novel can be classified into two sides. One was space's formation that character's wishes were realized and the other was not. Former was amicable to the character and latter was not. Second, whether the side was amicable or not, each side tried to control character along with each one's status, and in this point, “*Biograph of Wi, Gyung-cheon*” can be said to have plot that two side competed to draw the character into its own domain. Third, *Wi* took the worth that ‘one side’ advocated, and ‘his taking’ became against what ‘the other side’ advocated. *Wi* took the worth to obtain his own identity, and his action can be, logically, said to show ‘resistance against the other worth’. Fourth, in “*Biograph of Wi, Gyung-cheon*”, both centrifugal space and centripetal space can be seen simultaneously, and one space stared at the other space, and confrontal composition appeared with non-Euclidean geometric recognition. The novel has remarkable literature-historic meaning in the point that it gave diversity to spaces and actualized human lives stereoscopically.

Key words : space's formation, value, centrifugal space, centripetal space, diversity

신태수

경일대학교 교육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주소: (701- 751) 대구시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1차 110동 603호

전화번호: 019-515-8879

전자우편: sandang@paran.com

이 논문은	2008년 10월 27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